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법 개선... 진단시간 단축·추출강도 높여

경기도농기원, 희망농가 대상
토양 진단 서비스·컨설팅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인삼재배에 가장 치명적인 뿌리썩음병의 신속 진단 기술을 개선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삼은 동일 장소에 연속 재배하면 연작장해(해마다 계속적으로 같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작물이 피해를 입는 증상)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작목이다. 연작장해의 가장 큰 원인은 토양 내 서식하는 뿌리썩음병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근인 5~6년생 재배지에서 수량과 상품성을 크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농가 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개선한 신속진단법은 토양시료의 양을 90% 줄이고, 진단시간을 43% 단축하면서, 병원균 추출강도는 70% 높게 검출이 가능하다.

인삼 경작지 또는 예정지에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진단 신청서와 토양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진단 결과는 2주 후면 받아볼 수 있다.

경기농기원 소득지원연구소는 추후 뿌리썩음병 진단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도 내 인삼농업과 협업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마련한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경기

연천, 포천, 안주, 양평, 남양주 등 개성인삼농업 관할지역 계약재배 농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썩음병 진단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지원연구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농기원 김진정 소득지원연구소장은 "인삼 뿌리썩음병의 신속 진단 기술 개선이 인삼의 연작장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삼 재배지 직접 가능성 여부와 토양화학성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저배 저지 선정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이경호 기자

시상식



특별한 농업, 누가 누가 잘 하나요? 경기농업기술원이 22일 농민 농업과학교육원에서 '2024년 경기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경기도 사이버농업인 연구회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인 스마트경영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판로개척을 선도하는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개최됐다. [사진=경기농업기술원]

충남도 치유농업센터, 체험 장소로 '인기몰이'

최근 2달 동안 1천여 명 몰려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 늘어

충남농업기술원(원장 김경은)은 지난해 기술원 내 개관한 치유농업센터가 치유농업 체험 장소로 주목받으며 방문객을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이 사회기반보장제도와 연계·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타 분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외연을 확대하는 등 거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

비·여행 경향이 자연친화적으로 변화하고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이에 충남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원내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고 치유정원과 텃밭, 치유과학실, 체험장 등을 조성했으며, 다양한 치유 효과 측정 장비를 구비했다.

최근 2달간 1천여 명이 찾은 치유농업센터에는 농경인을 비롯해 일반인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

방문객들은 개장 중인 치유정원과 텃밭을 체험·관찰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 '생명의 탄생', '상채고 수확'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이 함께할 수 있는 치유농업,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 치유농업센터 체험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1일 2회 운영하며, 충남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김창환 충남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농업팀장은 "점차 늘어나는 농업·농촌의 기대가치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개방할 것"이라며 "더욱 알찬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경호 기자

농업 디지털 전환·응용 강화로 지속가능 농업해야

경기도·산동성, 공동 심포지움
현황 공유·발전방안 논의

경기농업기술원과 중국 산동성농업과학원은 22일 경기도에서 '경기도-산동성 농업과학기술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양 지역의 디지털농업 및 농업 응용 분야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디지털농업과 치유농업, 곤충 등 농업의 응용에 관한 2건의 기조발표와 6건의 주제발표, 2건의 사례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데이터 에널리틱스(통

계), 디지털육종(育種),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등 경기도디지털농업IT의 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 디지털농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날 지형훈 농업과학기술 교류 협회에서는 채리와 딸기, 바섯, 치유농업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와 산동성은 2009년부터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시작해 바, 바섯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 교류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14년 공동심포지움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3년마다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네 번째 행사

이다.

한편, 경기농기원은 산동성과 라오닝성(1994), 장쑤성(2015), 지린성(2016)과도 최초협약 이래 꾸준히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라오닝성농업과학원과는 교류협약 협약을 위해 오는 7월 대표단을 이끌고 라오닝성에서 중장기 교류분야 발굴 및 연구원 상호교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 경기농업기술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교류 등 제약이 많았던 양 지역의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기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이경호 기자

충북농기원, 마늘 활용 요리법 무상 제공

모범음식집회 대상 설명회
단양 마늘 소비 확대 기대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화)은 단양군의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하여 개발한 요리법 7종을 21일 단양군 모범음식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품평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소스류 중 만능 조미장은 마늘을 중심으로 간장, 고춧가루 등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맛을 낼 수 있는 조리법으로 생선찜, 볶음류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흑마늘 추출액을 첨가하여 조제한 본가스를 소스는 튀김의 노끼같은 잡으면서 단양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마늘 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고추장은 마늘, 대파를 기본으로

오미자청 등을 넣어 양념장으로 먹거나, 비빔밥용 고추장으로 쓰면 감칠맛이 우수하다. 그 외에도 황기차를 넣은 마늘죽 등 총 7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단양군 모범음식집회 이숙자 회장은 "단양에는 마늘을 첨가한 닭강정, 빵 등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소개해 준 요리법을 사용하면 특색 있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충북농업기술원 식품자원팀 원현주 박사는 "마늘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이지만,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로 인해 활용도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번 요리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원하는 음식집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단양 마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북=김천재 기자

강원농업기술원,
옥수수 활용 제품 상용화 협의회

강원농업기술원(원장 이상현)은 27일 강원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옥수수를 활용한 가공기술 R&D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시군농산물 가공센터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농업경영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리프트로 옥수수 품종개선 전조기기술' 등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와 R&D 옥수수 가공기술을 시군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생산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옥수수가공경쟁력의 상품 컨설팅과 판로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은 "지역특화작목인 옥수수나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시장경쟁력 강화와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김천재 기자

강원도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정기 예찰 강화"

홍천군 남면 배나무 농가 발견

강원농업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홍천군 배나무 농가(1농가, 0.5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3일 화상병 의심신고에 따라 현장 간이 진단 결과 '양성'으로 나와 24일 농촌진흥청 현장진단센터에 정밀진단 의뢰 결과, 최종 확진되었다.

해당 농가는 배나무 과수원 0.5ha에 식재된

200주 중 12주에서 발생(발생률 6%)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농업기술원은 현장방제 등 초중조치와 함께 홍천군에 방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배나무에서 발생한 화상병은 지난 2022년도 발생 과원인 17km 떨어진 농가로 인근지역 감염 방지를 위해 정밀예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농업기술원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시군 공무원과 예찰원을 투입, 발생구역 2km 이내 17과원(7.5ha)을 정밀 예찰

을 실시하고, 18시간 담당 과장단 회의를 통해 현장예찰과 신속방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과수재배 전체농가에 안내문자와 예방수칙을 발송, 예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농업기술원 유택근 기술보급장은 "도·시군 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이상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로 연락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원=김천재 기자

KFC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어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 임대차·매입비율 임대주택

- 매매 임대: 임대료 통한 영농구축에 지원
- 고임원: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율에 임대
- 자급: 지역 어민은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2030세대·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판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지금을 지급(종도인출 가능)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가는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특목농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문의 전화 **1577-7770**